

1/4분기 신규감염자 139명

하루 1.5명꼴로 HIV에 감염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4분기에 139명이 신규로 HIV에 감염되어, 2004년 3월까지 누적 감염자수는 총 2,679명으로 발표하였다. 2,679명 중 에이즈환자는 411명이며, 544명이 사망하여 현재 2,135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1/4분기 신규감염자 139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한 수치로, 이는 하루 평균 1.5명이 신규로 HIV에 감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신규 감염자 139명 중 남자가 130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감염자 전체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감염자 2,679명 중 남자가 2,406명으로 여자 273명보다 약 9배나 많이 남성에 대한 에이즈예방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내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98%(2,164명)가 성접촉으로 감염되었으며, 이중 이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64%, 동성간 성접촉은 3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혈로 27명, 혈액제제 17명, 수직감염 5명, 약물주사로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946명(3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대 710명(27%), 40대 573명(21%), 50대(11%)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나누어 봤을 때 남성은 30, 20, 40대의 순으로 감염자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은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경로와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성활동이 왕성한 20, 30, 40대의 감염비율이 높았으며 노년층의 HIV감염도 주목할 만하였다.

국내 감염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직장인 건강검진시 에이즈검사를 본인 동의 하에 수행하고 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3	04
총감염자	2,679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5	139
감염자중 환자	411	27	14	22	33	35	34	32	42	88	62	22
사망자 (환자)	544	55	21	33	36	46	43	52	58	76	96	28

연도별 발생현황 <<

»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백건 당서 연령암

연령	남	여	합계	백건 당서	남	여	합계	백건 당서
계	2,679	544	3,223	100.0	2,406	493	2,900	100.0
0 - 9세	12	2	14	0.4	10	2	12	0.4
10 - 19세	38	2	40	1.4	29	2	31	1.2
20 - 29세	710	61	771	26.5	623	49	672	25.9
30 - 39세	946	189	1,135	35.3	863	172	1,035	35.9
40 - 49세	573	160	733	21.4	522	147	669	21.7
50 - 59세	288	86	374	10.8	256	80	336	10.6
60세 이상	112	44	156	4.2	103	41	144	4.3

백분율: 남녀의 백분율은 남:여 각각을 100%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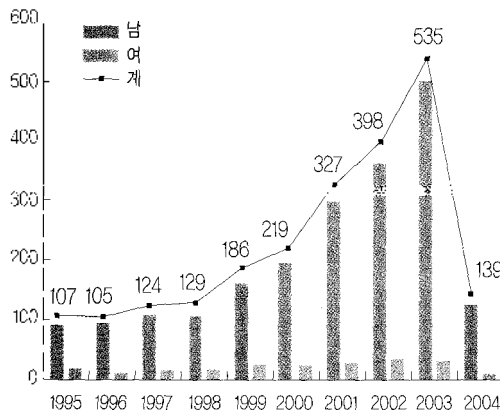
» 감염요인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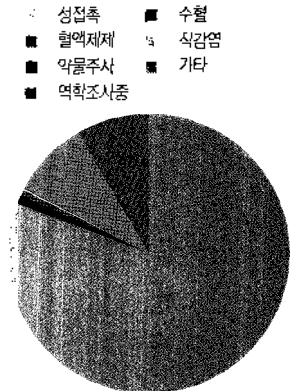
감염요인	남	여	합계	백분율
계	2,679	396	3,075	100.0
성접촉	1,014	157	1,171	34.2
수혈	14	13	27	0.6
혈액제제	17	5	22	0.6
약물주사	2	2	4	0.1
직접접촉	241	223	464	17.9
기타	2	-	2	0.1

백분율: 감염경로 밝혀진 경우(2,215명)

자료: 질병관리본부



» 연도별 성별 신규 HIV 감염자수 <<



» 감염요인별 현황 <<